



# 대한민국 동쪽의 끝 독도 이야기

22565836정유린

영토와 영유권분쟁 그리고 독도

# 목차 안내

2 / 13

CHAPTER 01

독도 소개

CHAPTER 02

지리적 특성

CHAPTER 03

독도의 역사

CHAPTER 04

독도 생태계

CHAPTER 05

일본의 주장

CHAPTER 06

독도 관련 법률

# 독도 소개01

---

우리 독도는 어떤곳인가

---

---

# 독도 소개



## 독도

독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섬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도 주변에는 약 89개의 부속 암초가 존재합니다. 독도의 총면적은 약 187,554㎡이며, 대한민국의 최동단을 이루는 중요한 영토입니다.

# 독도 소개

## 독도



# 독도 지리적 특성02

---

독도의 지리에 대해서

---

---

# 독도 지리적 특성



## 1. 위치 및 행정구역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합니다.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에 자리잡고 있으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일본 시마네현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해상 경계에 놓여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 독도 지리적 특성

## 2. 구성 및 지형구조

독도는 크게 동도(서도라고도 함)와 서도(동도라고도 함) 두 개의 주요 섬과, 약 89개의 바위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주요 섬은 해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전체 면적은 약 187,554 m<sup>2</sup>(18.7ha)에 불과하지만 해양 주권과 관련하여 매우 넓은 해양영역을 확보하게 합니다.

- 동도: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유일한 섬으로,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간단한 생활시설과 헬기장이 있습니다.
- 서도: 상대적으로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 전체 지형은 급경사를 이루는 해안절벽과 해식동굴, 해식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점은 동도의 98.6m 지점입니다.



# 독도 지리적 특성

## 생성 및 지질학적 특징



독도는 약 460만~250만 년 전, 신생대 제4기 초에 발생한 해저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화산섬입니다. 현무암과 응회암이 주요 구성암석이며, 침식 작용과 파랑에 의해 현재의 독특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해의 지질사 연구나 해저 화산활동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닙니다.

# 독도 지리적 특성

## 기후와 환경조건

6 / 13



독도는 연중 강한 해풍과 높은 습도, 짧은 일조시간, 풍량이 잦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약 12°C이며, 연강수량은 1,300mm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연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 독도의 역사03

---

독도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

---

# 독도의 역사



## 1.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이전

독도의 구체적인 선사시대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울릉도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원시인류의 해상 활동 범위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국 이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 지역은 여러 부족의 활동 무대였다.

## 2. 삼국 시대 - 신라의 영토

512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을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이로써 독도는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

“이사부가 하슬라(강릉) 사람을 거느리고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 《삼국사기》

# 독도의 역사



## 3. 고려 시대

고려시대에도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에 속한 영토로 인식되었다. 《고려사》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나란히 등장하며, 두 섬이 근접해 있어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 4. 조선 시대

조선은 독도에 대한 명확한 영유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여러 문헌과 지도가 이를 증명한다.

- 《세종실록지리지》(1454):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한 섬인데,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볼 수 있다.”
- 《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됨.
- 조선은 ‘수토제도’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했으며, 어민들의 어업 활동도 이뤄졌다.

# 독도의 역사



## 5. 에도 막부 시대의 일본

17세기 일본의 어부인 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어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한국의 허가 없이 이뤄진 불법 활동입니다. 1696년, 조선과의 외교 문제로 번지자, 에도 막부는 두 가문에게 울릉도와 독도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역사적 증거이다

## 6. 대한제국 시대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고, 강원도에 소속시켰다. 이 칙령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독도의 법적 근거로, 명확한 한국 영토임을 증명한다

# 독도의 역사



## 7. 일본의 불법 편입 (1905년 러일전쟁 중)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은 군사적 목적을 이유로 독도를 '다케시마'라 이름붙이고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주권이 침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 8. 해방 이후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는 해방되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는 SCAPIN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이후 대한민국은 1952년 \*\*해양주권 선언(평화선)\*\*을 통해 독도를 명확히 자국 영토로 선포했고, 1954년부터는 경찰이 독도에 상주하며 실효 지배를 강화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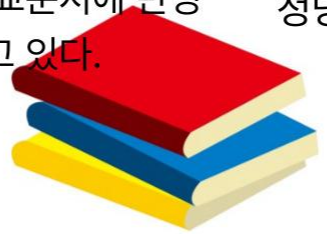


# 독도의 역사

## 9. 현대 - 한일 간의 영토 분쟁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완전한 실효 지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고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교과서에 기술하거나 외교문서에 반영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10. 국제법적 관점

역사적 기록, 지리적 근접성, 실효 지배 등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훨씬 강력하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점유"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토이다.



# 독도의 생태계04

---

독도에는 어떤 것들이 살고 있을까

---

---

# 독도의 생태계

## 식생

독도는 바위와 절벽 위주로 구성된 작은 섬이기 때문에, 토양이 매우 얇고 척박하여 식물의 생장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적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일부는 독도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입니다.

### 주요 식물종

- 섬기린초: 바위틈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독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 갯장구채: 해안가나 바위틈에 자라는 염분에 강한 식물입니다.
- 해국: 국화과 식물로, 가을에 보라색 꽃을 피우며 바닷바람에 잘 견딥니다.
- 둥근잎꿩의비름, 번행초, 좀향유 등도 일부 자생.

현재까지 확인된 자생 식물은 약 50종 이상이며, 환경부 및 학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독도의 생태계

## 조류(새 생태계)

독도는 동해를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자 번식지입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인적이 드문 환경 덕분에 다양한 해조류(海鳥)가 서식합니다.

### 주요 조류종

- 갯가리새: 독도에서 가장 흔한 새로, 매년 번식기를 위해 대규모 무리가 찾아온다.
- 바다제비, 습새, 뿔쇠오리, 물까마귀 등도 관찰됨.
- 노랑부리백로, 왜가리, 흰죽지오리 등 철새들도 휴식차 독도에 들린다,

이 중 일부 조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갯가리새



바다제비



습새

# 독도의 생태계

## 해양 생태계

독도 주변 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 어종 및 해양생물

- 물고기: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명태 등 다양한 어종이 분포.
- 갑각류: 독도새우(북방긴다리딱총새우) 등 독특한 종이 서식.
- 연체동물: 문어, 전복, 홍합 등.
- 해조류: 다시마, 미역, 툇, 청각 등이 풍부.



이처럼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아 생태학적 가치뿐 아니라 어업 자원으로써도 매우 중요합니다.

# 독도의 생태계

## 포유류와 기타 생물

### 독도박쥐

- 대한민국에서 독도에만 서식하는 고유종 박쥐로, '유령박쥐'라 불리기도 합니다.
- 독도의 해식동굴이나 바위틈 등에서 소규모 개체군이 발견되었습니다.

### 곤충류

- 독도에는 바람과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몇몇 내염성 곤충과 거미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 인위적인 생물 유입은 거의 없지만, 일부 곤충이 강풍을 타고 유입되기도 합니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 1.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다케시마 (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이 조치는 \*\*주인 없는 땅(무주지)\*\*를 점유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조선은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로, 일본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법상 유효하지 않다는 반박이 존재합니다.

## 2. 역사적 사용

일본은 에도 시대(17세기)부터 오야·무라카와 두 어민 가문이 울릉도와 독도(다케시마) 사이에서 조업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독도가 일본인의 활동 영역에 속해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울릉도 및 독도 접근을 금지한 기록도 남아 있어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석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 목록(한국, 제주도, 울릉도 등)에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따라서 일본은 독도가 조약상 한국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조약은 당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결과일 뿐, 영토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제법적 효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4.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는 불법

일본은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독도에 경비대를 주둔시킨 것을 무단 점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항의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항의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독도 관련 법률06

---

---

---

# 독도 관련 법률

## 1. 대한민국 국내법에서의 독도

### ① 헌법과 영토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역사적·지리적·행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며,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의 관할권 내에 있다

### ②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정부는 1954년 이후 독도에 경찰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독도 등대 설치(1954), 기상 관측소, 주민등록된 거주민, 우편번호 부여, 항공·해양 경로 설정 등 여러 행정 조치를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이다

# 독도 관련 법률

## 1. 대한민국 국내법에서의 독도

### ③ 특정법: 『독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독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5년 시·군 행정 구역 개편을 계기로 제정되어, 울릉군 독도리라는 법적 주소가 명문화됐다.

이 법은 독도의 보호·관리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보전, 불법행위 단속 등을 포괄한다.

### ④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자연공원법』

독도는 '동해 해양보호구역' 및 '자연공원' 지정 대상이기도 하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환경 보호 및 자원 보존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 독도 관련 법률

## 2.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독도



### ①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원칙

국제법은 영토 분쟁에서 '실효적 지배'(effective occupation)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행정적, 군사적,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이 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효적 지배를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충분합니다.

### ② 무주지 선점론에 대한 반박

일본은 독도가 1905년 당시 무주지(terra nullius)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선은 이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수차례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17~19세기 조선의 문서(『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선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독도 관련 법률

## 2.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독도

### ③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영토 귀속

일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맥아더 사령부의 여러 내부 문서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조약 과정에서도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 ④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문제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닌 고유 영토라는 입장에서 회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이는 회부가 불가능하다.



# 감사합니다

22565836정유린

영토와 영유권분쟁 그리고 독도